



5월의 기억 예술로 승화한 ‘열흘간의 나비떼’

문화전당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 콘텐츠와 과제

옛 도청본관 등 광주항쟁 보존건물로 구성된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전시 콘텐츠는 ‘5·18 광주항쟁의 정신을 승화시켜 생동하는 아시아의 문화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감성의 공명터’에 맞춰져 있다. 광주항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관람객들이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가 짜여 있다.

전시의 개념은 ‘열흘간의 나비떼’로 5월 광주항쟁의 중요사건이 전개된 10일간의 기록하고, 변태과정을 거친 뒤 홀연히 사라지는 나비와 같이 희생된 시민들의 이미지를 담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시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결집했던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을 전시공간(고인돌 상징물 설치)으로 확대하는 것에 광주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5·18 관련 단체들은 광주항쟁을 재현하는 전시콘텐츠를 주문하고 있다.

◇예술적 감성으로 승화된 5월 광주=옛 경찰청본관(가칭 민주관)은 광주항쟁의 주요 사건이 ‘빛의 정거장’, ‘아우성’, ‘깨어진 거울’ 등을 주제

로 펼쳐진다. 전시작품 내용은 도청 앞 분수대 집회, 군부의 집단발포 등이다.

전시 가운데 하나인 ‘빛의 정거장’은 광주항쟁의 상징적 공간인 도청 앞 분수대의 모형을 설치한 뒤 그 주변에 돌장승을 배치해 민주화 열기를 조명했다.

‘아우성’ 전시작품은 광주항쟁 진압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이 작품은 관람객들이 손으로 만지면 영상과 글씨가 흐트러지는 체험형 방식으로 제작됐다. 작품 ‘깨어진 거울’은 유럽 전위예술가인 피스톨레토씨의 작품 개

5·18 정신...민주·인권·평화 ‘감성 공감’

옛 도청 분수대광장 전시공간 활용 논란

념을 빌려온 것으로, 시민들을 겨냥 집단발포가 이뤄졌던 금남로 현장을 거울에 담았다.

옛 경찰청 민원실(평화관)은 민주·평화·정신이 구현됐던 광주의 기억을 되살리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최우람 작가의 키네틱아트로 제작된 기계꽃(꽃 모양의 작품)이 설치돼 해방광주의 환희를 조망한다. 민중화가들의 작품, 사진기자들의 5월 현장사진도 전시된다.

옛 도청회의실(러닝센터)은 가칭 ‘윤상원 기념관’으로 변신한다. 윤상원 열사는 5월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로,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으로 활약했다. 시민들이 터치 스크린을 만지면 특정 5월 관련 역사적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5월의 역사적 뿌리를 조명하는 동학농민운동, 4·19 혁명 자료와 5월 광주를 다룬 문학작품도 볼 수 있다.

옛 도청본관(인권관)은 광주항쟁

격전지인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싸웠던 시민군들의 희생정신과 민주·인권·평화를 염원했던 마음들을 작품으로 승화한 공간이다. 설치작품 ‘바람의 탑’은 광주 시민들의 투쟁기록을 수록한 당시 ‘투사회보’를 소용돌이 치는 형상으로 보여준다. 시민군 항거의 심장부인 도청상황실은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이 공간에서는 도청을 향해 오는 진압군의 전차소리, “우리를 잊지 마세요”라며 절규했던 시민군들의 목소리가 육성으로 흘러나온다. 저주과 파동을 일으키도록 설계돼 시민들이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했다.

옛 상무관(메모리얼홀)은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거룩한 돌)을 세우고 5·8 당시 관(棺)을 상징하는 검은 돌을 바닥에 깔아 희생자들의 추모공간으로 꾸몄다. 원통의 안쪽 벽면에는 5월 희생자들의 생몰연대를 새기고, 원통 바깥벽에는 세계 언론에 비쳐진 5월 광주의 모습과 정신을 새겨넣었다.

◇전시콘텐츠 완결에 걸림돌도=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전시 콘텐츠를 완성하는 것과 관련, 도청 앞 분수대 일원 광장(옛 상무관과 앞)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전시 콘텐츠를 마련한 황지우(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원 교수) 책임연구원은 이 광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공간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황 교수는 이 공간에 크고 작은 고인돌 50여기를 배치해 광주정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삼는 등 기념공간으로 만들자는 내용을 전시 콘텐츠 계획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장에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광장의 개념과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는 또 이 공간에 5월을 상징하는 돌을 깔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전시 콘텐츠를 구현하는 데 있어 또 다른 걸림돌은 5월 단체들의 반발이다. 5월 단체들은 옛 도청본관 등 5월 관련 유적을 훼손하지 않고 전시공간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 건물의 칸막이 등은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시콘텐츠 내용에서도 5월 단체들은 광주항쟁의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민의 모습을 밀랍인형 등으로 제작하는 등 사실적인 재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옛 경찰청 민원실(평화관)에 전시될 5월 해방의 환희를 표현한 설치작품 ‘기계 꽃’(꽃 모양의 작품)의 개념도.



옛 상무관 지붕에 놓여진 ‘환호하는 분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보며 환호하는 시민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옛 도청별관도 전시공간 활용해야”

시민설명회 토론회

“옛 도청별관 등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건물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19일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시민설명회’에서는 전시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반면, 다양한 보완방안도 제시됐다.

해당 전시 콘텐츠는 황지우(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원 교수)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책임연구원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로 참가한 조정관 전남대 정외과 교수는 “광주항쟁의 정신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전시콘텐츠”라면서 “다만 전시공간을 도청 앞 분수대까지 확장하고 옛 도청별관 등 빈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청별관은 현재 건물노후로 사용불가 상태다.

그는 이어 “5·18 광주항쟁이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에 영향을 준 내용도 전시콘텐츠에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공휴 5·18구속부상자회 부회장은 “전시콘텐츠의 스토리 전개방식과 구현에 5월단체들이 공감하고 있

다”면서도 “주인권평화기념관 건물들이 5월 사적이니 만큼 철저하게 보존하고 전시내용도 사실을 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가톨릭센터에 신설될 5·18 기록관 등 기존 광주항쟁의 보존공간들과의 차별성 부각을 주문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세현 5·18 기록관추진단장은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에는 향후 설립될 5·18 기록관과 기능, 역할이 중복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만큼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지우 전시콘텐츠 책임연구원

“5·18 은유와 상징으로 형상화”

“5·18 광주항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보다는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은유와 상징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황지우(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원 교수)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책임연구원은 19일 오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기자간담회

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5월 희생자들의 피와, 밀랍인형 등으로 사실적 재현을 해달라’는 5월 단체의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황 교수는 전시구상안과 관련, “광주항쟁의 사실적 재현은 창작을 구축하기 때문에 은유와 상징을 바탕으로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황 교수가 제시한 전시콘텐츠에는 계엄군의 진압 등 잔혹한 장면은 간접적인 영상이나 설치작품 등으로 형상화했다. 관람객이 작품을 만지면서 공감하는 체험형 콘텐츠도 포함돼 있다. 전시공간의 주축인 옛 도청 등 건물 보존에 대해선 “옛 도청의 수위실과 시신 수습장소를 반드시 찾아서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인권평화기념관 기념관 명칭에 5·18을 넣어달라는 5월 단체의 주장이 일리 있는 만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옛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 ‘고인돌 모뉴먼트(기념물)’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황 교수는 “거대한 돌덩이는 5월의 과거 응고된 것이고 5월을 불멸의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옛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의 관리주체인 광주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지우 책임연구원

빛日만평

- 김중두



날씨 탓이지, 내 탓이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184일간의 여정, 440만 관람객의 감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